

한 작은 아이의 헌신

왕하 5:1-7

덴마크라는 나라는 육지보다는 바다가 훨씬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바닷가 주위에 독을 막아서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고서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꽃도 재배하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있어서 독은 곧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소년이 그 바다로 난 독길을 따라서 심부름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길을 가는 이 소년은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막아놓은 독 한쪽에서 아주 작은 구멍이 나서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라 그냥 지나 칠 수도 있었지만 그 소년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서 이것을 어떻게 막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막을 만한 적당한 것이 눈에 띄이지 않자 그 소년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 구멍을 막았습니다. 다행히 물은 새지는 않았으나 소년은 이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 손가락으로 막았던 그 구멍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더니만 이제는 주먹으로 막을 만큼 구멍이 커져 버렸습니다. 소년은 급기야는 자신의 주먹으로 그 구멍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그 구멍이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팔뚝 전체를 집어넣어서 막아야 했습니다. 당황한 그 소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독이 터진다고 도와 달라고 소리를 쳤지만 깊은 밤이라 아무도 그 어린 소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독은 어느새 소년 자신의 몸으로 막아야 하는 큰 구멍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덴마크는 북극에 가깝기 때문에 밤이 몹시 춥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밤새 자신의 몸을 통하여 바닷물이 넘쳐 오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그만 그 자리에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이른 아침 밤사이엔 실종이 된 그 소년을 찾았을 때, 그는 이미 독에 몸이 끼여서 얼어 죽고 난 뒤였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마을 사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무너지려는 독을 막은 사실을 안 마을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알지 몰랐습니다. 결국 소년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마을 전체는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희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소년은 어두운 밤이기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아니 그 광경을 전혀 못 본 척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그냥 지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 자신만을 알고 자신의 것만을 챙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참으로 귀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을을 살리기 위한 이 어린아이의 섬김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작은 어린아이들의 섬김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군대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나중에 "수리아"라고도 불렸던 나라입니다. 셈족의 후예로서 원래는 유목민이었으나, 후에 다메섹에 정착을 하여 크게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적대관계 혹은 우호관계를 맺은 그런 나라였고, 특별히 상업에 뛰어난 기술이 있어서 이들의 언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들의 아람어가 팔레스틴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찾아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나라의 군사들을 총 지휘하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문둥병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용사이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신체적인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아픔이 나아만에게는 큰 고통이요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군대장관이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좋은 약과 좋은 의사를 동원하여 자신의 병을 고쳐 보려고 많은 수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그 병이 낫지를 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과의 전쟁 때 사로잡아 온 여자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여자아이가 누구인지, 어디에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이 여자아이의 행한 그 일은 매우 귀중한 일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아람나라에도 전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낫 설은 땅에 포로로 잡혀 와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는 열심히 일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았고 신뢰를 받았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늘 그의 주인인 나아만과 그의 부인이 이 문둥병 때문에 마음에 큰 고민과 아픔이 있는 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은 어느 날 고민을 하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른이 문둥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의 아내는 그 어린아이의 말에 아마도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그는 즉시 나아만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나아만도 아내로부터 전해들은 이 사실을 즉시 왕에게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왕 앞으로 한 통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그 편지는 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라는 아람 왕의 편지였습니다. 물론 이 병은 아람 임금의 편지 한 통으로 고쳐질 수 있는 종류의 병이 아닙니다. 왕의 막강한 권세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알고 있는 좋다는 의사들도 이 병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말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는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어린 여자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 예언자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또 그의 주인 내외인 나아만의 부부는 이 철없는 어린아이의 말을 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의 신분은 포로로 잡혀온 종입니다. 남의 집에서 허드렛일이나 하는 그런 하찮은 종의 신분의 아이입니다. 감히 그가 주인의 병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아내는 이 어린아이가 한 그 말을 듣고서 즉시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들을 그 남편은 지체하지 않고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 질 수가 있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알면 무엇을 얼마나 알겠으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언자의 사역을 알고 있다 해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담대하게 '그 예언자 앞에 가면 고칠 수가 있을 텐데...'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나아만도 그의 아내도 이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서 신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즉시 이스라엘로 떠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해서 한나라의 군대장관이요, 아람나라의 존귀한 사람인 그가 포로로 잡혀 온 이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쉽게 이스라엘로 갈 수가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어린아이의 평상시의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신뢰감이 가도록 행동을 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신뢰할 만큼 그 아이의 행동이나 말이 신중했고 진실하였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작은 충고가 나아만을 살렸습니다. 한 작은아이의 진실한 섬김이 나아만의 병을 낮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꼭 크게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어 놓아야만 그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기억할 만한 크고 귀한 일을 하여야만 헌신이라고 보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헌신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헌신은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소중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교회에도 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묵묵히 식사당번을 감당하시는 분들, 교회 안팎의 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 교회의 예배와 살림을 위해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식사를 준비하면서, 교회 환경을 위해 그리고 예배와 교회 살림을 위해 일하면서 돈 받고 일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왕년에 신앙심이 깊었던 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왕년에 신앙생활 잘 한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땐 나 죽어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억울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그 때 죽지.” “예?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일생동안 신앙생활 한 것을 평균내서 70 점 이상이면 들어오는 곳이 아니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한 강도, 그는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강도짓을 해 십자가형을 당했지만 마지막에 회개함으로 낙원에 갈 수 있었다. 아무리 너의 신앙이 예전에 깊었어도 그 신앙이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만약 의사가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 당한 사람을 보았는데, 가서 치료해주고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나았을 것을 그냥 지나쳤다면 우리는 그를 진정한 의사라고 부르겠습니까?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서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일들/헌신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쉽게 지나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신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진실된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를 신뢰했던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가서 치료를 받아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수심이 가득했고 고통이 극심했던 나아만의 가정이 기쁨의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 작은 어린아이의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텐마크 이야기에서 고향도 나타나지 않고, 부모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더욱이 본인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한 무명의 작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온전한 섬김과 희생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찌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일지도 모르는 그런 일에 대하여 우리는 섬김과 헌신을 다할 수 있을지 우리자신을 한 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우리는 지금 사순절 다섯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전도여행입니다. 주님을 목상하고 그리워해야 하는 그런 계절이 이 사순절의 계절입니다. 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에서 헌신을 생각하시며,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